

페이퍼코리아 공장 이전 급물살

군산산단 내 공장 이전 현재 공정률 65% 돌파 12월 신공장 가동 예정

군산 조촌동 소재의 페이퍼코리아 공장이전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페이퍼코리아(주)는 1944년부터 현 조촌동 부지에서 제지산업을 운영해 온 군산 향토기업으로 지난 2011년 시와 MOU를 체결하고 군산2국가산단 내로 이전하는 사업을 추진해 왔다.

2015년 4월, 공장이전을 위한 도시계획 변경을 완료한 이후 지난해 7월 신 공장 건축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6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지난 4월에는 조촌동 공장설비 3개 중 우선적으로 1개를 가동 중단하고 공장이전을 본격 착수했다. 페이퍼코리아(주)의 한 관계자는 “남은 2개의 공장설비 또한 11월초 전면 가동 중단될 예정이고, 이후 철거업체가 정해지는 대로 철거작업에 들어갈 계획”이라며 “12월에는 신 공장 공사를 완료한 후 시운전을 거쳐 공장가동에 들어갈 계획으로 70여년

조촌동 시대의 막을 내리고 국가산단에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전했다. 또한 조촌동 공장부지 내 개발사업도 순조롭게 진행 중으로 1단계 기판시설이 62%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푸르지오아파트(1,400세대)가 내년 3월, e편한세상아파트(854세대)가 내년 11월 입주할 앞두고 건설공사에 한창이다. 제일고 회전교차로 인근 아파트 423세대 또한 연내 분양을 앞두고 있으며 공장 철거착수 등 공장이전 가속화에 따라 지역주민들도 직접 피

부로 실감할 수 있는 이전 작업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페이퍼코리아 공장은 당초 외곽이었던 대규모 공장 주변이 도시팽창에 따라 주거지 안으로 들어오면서 악취 등 많은 환경문제를 야기해 9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이전 필요성이 제기되어 2011년부터 이전사업이 진행되어왔으며, 사업이 완료되면 동군산 균형발전과 함께 오랜 시간 악취 등으로 고통 받은 지역주민의 주거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군산=김판곤 기자

정현을 익산시장 ‘눈높이 소통’ 분주



익산시(시장 정현을)는 각계각층 시민들의 생생한 의견을 청취하고 시민 눈높이에 맞는 소통을 통해 열린 시장을 펼치기 위해 현장행정을 실시했다. 정현을 시장(사진)은 30일 오후 송학동을 비롯하여 영등1동까지 6개동을 방문하여 주민 숙원 사업 현장에서 주민 애로사항과 건의사항 등을 청취했다. 또 다양한 의견 교환을 통해 시정에 대한 투명성과 주민들에게 다가가는 소통·공감 행정을 추진했다. 송학동 주민들은 행정복지센터 인근에 인도설치를 요청하고, 모현동은 원모인 마을 외 1개 CCTV설치와 버스승

방치된 폐선부지, 나눔 숲으로 탈바꿈

구 동익산역에 총 4억3500만원 투입 휴식공간 조성

익산시(시장 정현을)는 산림청 산림복지진흥원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남부권 나눔 숲 조성사업’을 올해 말까지 추진한다. 남부권 나눔 숲 조성사업은 전라선 폐선부지 공원화 사업의 일환으로 구 동익산역 부지 6,000㎡에 산책로와 수목식재, 휴식공간 등이 조성된다. 산림청 녹색자금 3억원과 시비 1억3,500만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다. 구간 구)동익산역은 방치된 폐선부지로 인해 경관 훼손과 악취 등 지역주민들의 불편이 많았으나 나눔 숲 조성으로 주민들에게 쾌적한 환경과 휴

식 공간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나눔 숲 인근에는 노인종합복지관과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있어 시설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에게 휴식과 운동을 통한 힐링과 치유의 공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나눔 숲 내에는 현수 받은 수목으로 ‘시민의 숲’이 조성돼 시민들이 참여해 조성하는 뜻깊은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남부권 나눔 숲 조성사업을 연내에 차질 없이 마무리 해 많은 시민들이 찾고 힐링하며 참여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겠다”고 했다. /익산=장영원 기자

군산시 농촌중심지 새활력 불어넣는다

‘살기 좋은 농촌 만들기’, 군산시가 농촌지역 활성화 및 농촌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이란 농촌의 중심지인 읍·면 소재지에 교육, 문화, 복지, 의료 등 생활서비스 공급 기능을 강화하고 배후마을에 대한 서비스 전달 체계를 활성화함으로써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군산시는 인구감소, 노령화, 이농현

상 등 날로 어려워지고 있는 농촌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해 관내 농촌지역 10개 읍면을 대상으로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순차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 특히 올해는 2018년도 신규사업으로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농촌중심지활성화 공모사업’에 회현면과 서수면이 모두 최종 선정되는 쾌거를 이뤄냈다. 회현면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국·도비 51억원을 지원받아 총사업비 60억원을 투자해 너나들이센터,

어울림센터 등을 조성할 계획이며, 서수면에서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국도비 49억원을 지원받아 총사업비 58억원을 투자해 무궁화복지센터, 구 구발발센터, 청소년드림센터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시에서는 나포면과 옥서면에 대해서도 공모사업에 응모할 계획으로 현재 지역 주민들에 대해 주민역량 강화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오는 12월까지 공모사업 응모를 위한 예비계획서를 작성한 후 내년 1월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응모할 예

정이다. 시 관계자는 “농촌지역개발사업 추진방식이 관 주도형에서 주민 주도형으로 바뀌어 감에 따라 공모사업 선정과정에서 주민들의 활동 및 추진의지 등이 중요하게 평가되므로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시에서는 주민들을 위한 선진지 견학 및 관련 포럼을 개최해 주민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군산=김판곤 기자

‘군산전북대병원 건립’ 15만 서명운동 돌입

현재 12만명 시민 동참 목표량 80% 달성



군산상공회의소가 ‘군산전북대병원 건립’ 정상추진 시민서명운동을 실시하는 가운데 시민들이 서명운동에 동참하고 있다.

군산전북대병원 건립 정상추진을 촉구하기 위해 군산상공회의소(회장 김동수)가 실시하는 ‘군산전북대병원 건립 정상추진 시민서명운동’에 28일 현재 12만명의 시민이 서명한 것으로 집계되어 전북대병원 군산분원 설치에 대한 군산시민들의 호응 속에 순조롭게 활발히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산상공회의소는 당초 15만명을 목표로 11월 3일까지 1차서명을 진행하고 미흡분부에 대해서는 추가로 11월 8일까지 2차 서명운동을 실시하기로 하였는데, 지금 현재 목표량의 80%가 달성되어 군산전북대병원 건립 추진 촉구에 대한 군산시민의 열원이 생각보다

훨씬 커다란 것으로 자체 분석하고, 11월 8일까지 시민운동을 꾸준히 벌여 군산시민의 열원을 전북대병원에 전달 할 계획이다. 군산전북대병원 설립 시민 서명운동에는 군산상공회의소가 3개소의 가두서명대를 설치 진행하고

있으며, 별개로 유관기관 및 다른 시민단체등과 연계 뜻을 모아 더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군산상공회의소(회장 김동수)는 시민의 열원이 담긴 서명이 완료되면 이를 전북대병원 측에 전달할 계획이다. /군산=김판곤 기자

원광대학교 김용길 교수 관세행정혁신위 위원 위촉
원광대학교(총장 김도중) 법학전문대학원 김용길 교수(사진)가 관세청 관세행정혁신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 관세행정혁신위원회는 과거 관행적으로 추진하던 관세청 업무를 원점에서 점검하고, 국정과제 및 대통령 공약 사항을 반영해 앞으로 개선할 과제를 발굴하여 이를 심의의결하며, 분기별 1회 또는 필요할 경우 수시로 개최해 심의를 완료하면서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있다. 한편 김용길 교수는 앞으로 1년 동안 관세행정혁신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관세청의 업무추진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원천에 따라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의견을 제시하게 된다. /익산=장영원 기자

군산시, 저소득층에 무이자 임대보증금 지원

군산시가 저소득층 임대주택 입주자에게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주거복지사업의 일환으로 군산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무이자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시에서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대상으로 가구당 600만원의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임대 기간은 2년 단위로 2회까지 연장할 경우 최대 6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자격은 군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기초생활수급자세대로 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신규 입주자만 가능하며 입주자로 확정되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신청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무이자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은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을 위한 사업으로 위 자격요건을 갖춘 가구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하셨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시에서는 열악한 환경에서 거주하는 가구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시는 2010년부터 현재까지 398가구에 30억6800만원을 지원하여 무주택 수급자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있으며 지원사업의 신청 대상자는 계약서와 인감증명서, 신분증을 지참하여 시청 주택행정과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 주택행정과(☎ 454-4243)로 문의하면 되며 모집 공고 세부내용은 시 홈페이지(www.gunsan.go.kr)를 참고하면 된다. /군산=김판곤 기자

전라북도 대한적십자사
전라북도지사

고맙습니다! 적십자회비

나눔이 희망입니다.

여러분이 참여해 주신 적십자회비는
경주지진, 태풍 차바, 화재 등 각종 재난을 당한
이재민과 소외된 이웃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올해도 적십자회비로 희망을 전하세요.

금융기관

가상계좌

인터넷

전화

편의점

신용카드 포인트

QR코드

홈페이지 www.redcross.or.kr
정기후원-긴급지원 문의 1577-8179

홍보대사 안재욱